

# 박태종 2000승을 위한 ‘노란 응원’

한국경마 최초 기록 앞두고 부담감에 주춤팬들, 현수막에 노란포스트잇 활용해 응원

한국경마 최초로 2000승이 보인다!

박태종(50) 기수는 경마역사를 새로 쓰는 ‘한국경마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가 걷는 길, 그 자체가 곧 한국경마의 역사다. 사상 첫 1만3197회 기승, 사상 첫 1986회 우승 등 기록 제조기다. 1987년 4월 데뷔해 올해 기수경력만 30년차다. 코리안더비(G1), 그랑프리(G1) 등 대상경주 우승만 39회에 달한다. 최우수 기수로 5회에, 지난해에는 ‘올해의 공경대상’의 주인공이었다.

박 기수는 평소 술이나 담배는 일절 손대지 않는다. 엄격한 체력관리로 지천명이 넘은 나이에도 꾸준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경마실력만 최고는 아니다. 올곧은 행실로 경마팬, 경마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지난 1999년 ‘영예의 전당’에 첫 번째 기수로서 이름을 올렸다.

## ●박태종은 곧 역사다…사상 첫 2000승 눈앞

그가 이제 30년 경마인생에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경마 최초의 2000승’이라는 대역사가 그것이다. 대만의 2000승까지는 5일 기준으로 단 14승만 남았다. 그는 지난해 월평균 6회에 달하는 우승기록을 세우고 올해 역시 1월 한 달 동안 7번 우승을 거머쥐었다. 현 추세라면 이르면 2개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2000승 고지는 무난히 정복할 수 있다.

2000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박 기수는 요즘 부담감이 크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2000승에 대해 언급할 때면 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첫 대상경주였던 ‘제13회 해럴드경제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이제부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 같다”며 달성 시기나 목표와 관련한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현재는 2000승을 달성하기 전까지 되도록 매체와의 접촉도 피한 채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 ●박태종 2000승 기원 응원 이벤트…‘노란 응원’에 응답하라

이런 박 기수를 위해 한국마사회와 팬들이 나섰다. 우렁찬 응원의 목소리가 아닌 ‘소리 없는 응원’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9일, 랫츠런파크 서울 관람대 2층 외벽과 중문사이에 ‘살아있는 전설. 박태종 2000승’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응원 모습과 별다른 것 없이 보인다. 한국마사회는 여기에도 노란 포스트잇을 활용한 기발한 응원을 추가했다. 현수막 아래에 ‘응원 메시지 게시판’이라는 응원공간을 마련하여 경마팬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한 것.

시작한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박태종 기수의 팬들이 자처하는 많은 경마팬들이 ‘노란 응원’에 동참했다. 저마다 노란 포스트잇에



한국 경마의 살아있는 전설로 또 하나의 대기록을 달성을 앞둔 박태종 기수.

응원의 목소리를 담아 빈 공간을 채워나감으로써, 당초 새하얗던 벽이 어느새 노란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그중에는 정성들여 박태종 기수의 얼굴을 그릴 정도로 열성적인 팬의 응원도 있다.

랫츠런파크 서울이 과거 독점에 위치했을 때부터 박태종 기수를 응원해왔다는 한 열성팬은 “박태종 기수의 모든 모습을 지켜봐온 산증인으로서 느낌이 남다르다”며, “2000승을 달성하는 순간까지 응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하며 노란 응원화(畵)에 색을 더했다.

한국마사회 역시 경마팬들과 응원을 함께한다. 박태종 기수가 2000승을 달성하기 전까지 응원 메시지 게시판과 대형 현수막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것. 특히 박태종 기수가 1승을 추가

할 때마다 현수막 중간에 위치한 ‘D-00’의 숫자를 바꾸기 위해 높은 사다리를 매번 올라야 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지난 30일, 박태종 기수가 1승을 보냈을 때도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다리를 찾는 것이었다”며 “그렇지만 박태종 기수를 응원하는 마음은 다른 경마팬들과 다를 바 없다. 숫자를 고치고 내려오며 나 역시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남겼다”고 말했다.

박태종은 역사를 향해 외롭게 달려가지만 힘들지 않을 것이다.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그의 곁에 경주로의 모래알보다 많은 팬들이 곁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한국경마 사상 첫 2000승’의 기록은 생각보다 더 당겨질 수 있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 애무전문 시정마 ‘판우드세시’를 아시나요?

### 홍당무의 경마오디세이

경주마 꿈꿨지만 덩치 작아 데뷔 못해 하루 최대 40회 씨수말의 합방 도우미

애무 전문마 ‘시정마’를 아시나요?

시정마는 교미 때에 암말에게 혈통 좋은 수말이 채이지 않도록 암말의 기분만 떠보는 말이다. 암말이 씨수말과 원활히 합방할 수 있도록 애무를 통해 마음을 녹이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경마산업은 약 8조원대. 그 근간은 경주마다. 우수한 경주마를 생산하기 위해선 혈통 좋은 씨수말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명한 씨수말들은 특급 대우를 받으며 1000여원을 호가하는 몸값을 자랑하기도 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씨수마는 ‘메니피’로, 1회 교배료만 700만원에 달한다. 교배기가 되면 1년 평균 200회, 하루에는 2번에서 많게는 3번까지 교배를 하기에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엄청나다. 때문에 이런 ‘황제마(馬)’를 다룰 땐 ‘육체’가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발정기가 되면 암말은 성격이 포악해져, 마음에 들지 않는 수말에게 곧잘 뒷발질을 해 씨수말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결사 역할을 하는 말이 바로 ‘시정마’다.

프로 시정마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특기로 흥분한 상태의 암말을 진정시킨다. 암말의 뒷발 공격을 요리조리 피하며 엉덩이를 비롯해 신체 곳곳을 애무하기도 하고, 오히려 신체 일부를 공격하며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이들은 1년 동안 평균 400~500번의 시정을 담당하고 있다.

시정마는 말 그대로 암말에게 애무만 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씨수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불운한 수말이기에 받는 스트레스 또한 어마어마하다. 일부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또 일부는 자신이 씨수말인줄 알고 달려들었다가 뒷발에 차여 시정마로서 장기간 활동하지 못하는 게 보통이다.

한국마사회 랫츠런파크 장수에는 17년 동안이나 이런 ‘혹독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기 시



한국마사회 랫츠런파크 장수에서 17년간 시정마로 활동한 ‘판우드세시’.

정마가 있다. ‘판우드세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당초 경주마로의 화려한 데뷔를 꿈꿨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덩치로 인해 시정마가 된 비운의 말이기도 하다.

발정기에 포악해진 암말의 격렬한 뒷발질에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는 다른 시정마와 달리 ‘판우드세시’는 오히려 더 저돌적으로 달려든다. 몇 분이고 적극적인 구애활동을 펼치며 결국에는 암말의 승낙을 받아내고야 마는 것이다.

오랜 경력만큼이나 나이도 적지 않다. 무려 21세로 사람으로 치면 예순 살이 훌쩍 넘은 나이다. 그럼에도 ‘판우드세시’는 교배기가 되면 하루 최대 30~40회의 시정 활동을 담당할 정도로 노련함과 정력을 뽐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눈물겨운 구애활동의 결말은 늘 씨수말에게 자리를 내주는 식의 쓸쓸한 세드엔딩으로 끝나지만 말이다.

하지만 늘 아쉬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 부 농가에서는 시정마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분을 풀어주고자 교배시즌이 끝나면 실제 암말과 교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통상 말의 교배기는 3월에서 6월 사이로 본다. 한국마사회 랫츠런파크 장수에는 이보다 조금 이른 2월 20일 전후로 교배 활동을 펼치며, 방문객들에게 그 모습을 공개한다. 일종의 이색 이벤트인 셈이다. 천혜의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는 덕분에 매년 많은 사람들이 힐링 명소로서 이곳을 방문한다.

경마칼럼니스트

## 홀슈피칭 즐겨볼까?

두팀으로 나뉘어 말편자로 던져 승부 가려

‘홀슈피칭’을 해 보셨나요?

홀슈피칭(Horseshoe pitching·사진)은 말 그대로 말편자를 던져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다. 고대 그리스 원반던지기에서 유래했다. 당시 원반을 살 수 없던 빈곤층이 버려진 말편자를 이용하여 게임을 즐긴 것이 오늘날 홀슈피칭의 시초가 됐다.

게임방법도 간단하다. 참가자들은 2팀으로 나뉘어 팀별로 2개씩 홀슈를 지급받는다. 정해진 선 안쪽에 서서 말뚝을 향해 홀슈를 던지되, 말뚝에 걸린 홀슈의 형태 또는 말뚝과 홀슈의 거리를 감안하여 승자가 결정되는 구조다.



랫츠런파크 서울이 2월부터 ‘홀슈피칭 챔피언십’을 상시 운영한다. 랫츠런파크 서울이 올해 개최하는 ‘홀슈피칭 챔피언십’은 토너먼트 형태로 진행된다. 매주 열리는 ‘챔피언십 주간대표 선발전’에서 선발된 3명은 월말 개최되는 ‘월간 챔피언십’에 참가할 자격을 얻는다. 여기서 우승 또는 준우승을 거머쥐어야 ‘연간 챔피언십’에 출전 가능하다. 각각의 대회에서 순위권에 들 경우, 상품권, 말편자 액자 등과 같은 푸짐한 상품도 증정 받을 수 있다.

연재호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매출 99%가 장외발매소…경마를 레저로 즐기는 영국

‘북메이커’ 합법 이후 8600개 장외발매소 경마팬 아니라 노벨문학상 맞히는 베팅도

“수상이 되기보다 더비 경주 우승마를 가진 마주가 되고 싶다.” 영국의 명재상으로 꼽히는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영국은 경마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종주국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마주이며, 왕실 주최로 경마대회도 열린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주요 경마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가족과 함께 경주장을 찾아 베팅을 즐기기도 한다. 영국에서 경마는 축구 럭비 등과 함께 사랑받는 대중 스포츠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인터내셔널 스테이크스’가 열리는 요크시는 방문객 10명 중 1 명이 경마를 보러 온다고 할 정도로 경마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경주가 열리기 6개월 전 호텔예약이 마감되고, 관광객의 20%가 외국인인 정도로 관광상품으로 역할도 크다.

영국은 경마시행체인 BHA(British Horse racing Authority)외에 ‘북메이커’라는 공인 사설마권업자가 있다. 이 북메이커들이 시행체와 마권 발매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1961년 개인 북메이커를 합법화 시킨 이후 현재 영국에는 약 8600여 개의 장외발매소가 있다.

대표적인 사설 북메이커는 레드브록스(Ladbroke’s). 영국을 포함해 유럽 전역에 2700여 개의 장외발매소를 가지고 있다. 레드브록스의 장외발매소는 영국 내 도심이나 대형쇼핑몰, 축구경기장 등 시내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영국 전체 경마매출에서 경마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밖에 되지 않는다. 매출의 99%가 장외에서 발생된다. 특히 레드브록스는 매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베팅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몇 년 전 굉장히 높은 배당률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맞춘 사람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베팅’을 즐기는 사람을 도박꾼으로 여기는 한국과는 전혀 다르다.

가족과 함께 영국에서 1년간 살다 온 장모

씨(50세)는 “영국은 베팅의 천국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시내 어디를 가도 쉽게 스포츠나 경마에 베팅 할 수 있다”며, “런던의 경우, 상가 지역에 레드브록스, 윌리엄 힐, 코랄 등 북메이커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가 즐비하다”고 영국 베팅문화에 대해 말했다.

참고로 영국의 장외발매소는 일주일 내내 경마 뿐 아니라 여러 스포츠 종목에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외발매소 기능에 충실한 편이며 규모가 매우 작은 소형점포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설마권업자인 ‘북메이커’의 대표적인 기업 ‘레드브록스’의 장외발매소.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2월5일부터 7일까지 설연휴로 랫츠런파크 서울, 부산경남, 제주가 휴장하기 때문에 출마표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